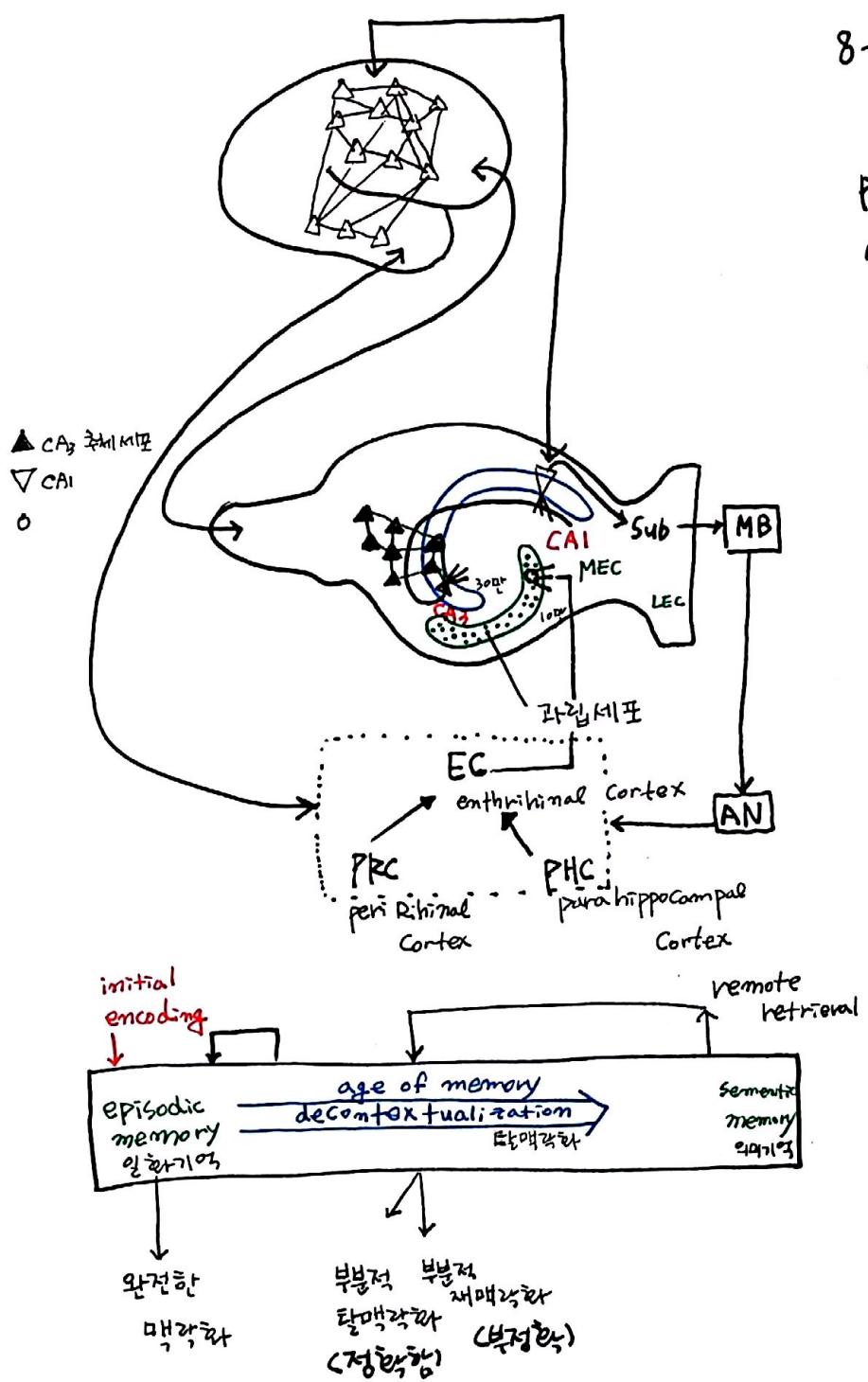


## 제 6회 특별한 뇌과학

2014. 12. 07

8장 기억 II.



탈맥락화가 계속 일어나면 의미 기억이 낸다. 일회기억이 내용을 떠나지 두 기억이 탈맥락이 일어나더라도 꼴깍인 기억이 낸다. 그 기억이 의미기억이다. 치매를 가진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먹더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면 담을 낸다. 의미 기억이 꼴깍이 되어 기억을 끌어내어 "삼겹살"을 말할 수 있다.

perception 하는 경로 중에

10%도 기억으로 가지 않는다.

perception → attention 등에

특정한 대상을 깊이 있게 기억이

된다.

CA3에서의 맥락화가 일어나면  
기억으로 고정화된다.

age of memory 를 사용해서 봐자.

9월 아침의 나라는 구성해 보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이

나아가 들어 10년이 되면 어떤가

될까. 나라는 Semanticize  
낸다.

일주일 전의 식사를 떠올리면

한번에 진 기억을 떠올리는데 된다.

오늘 아침의 나라는 "한정한 맥락"

이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기억을 탈맥락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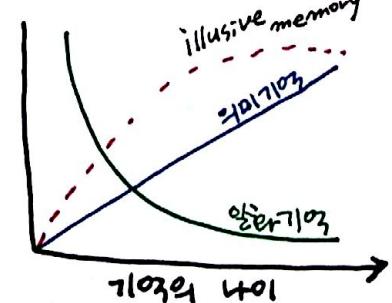
개념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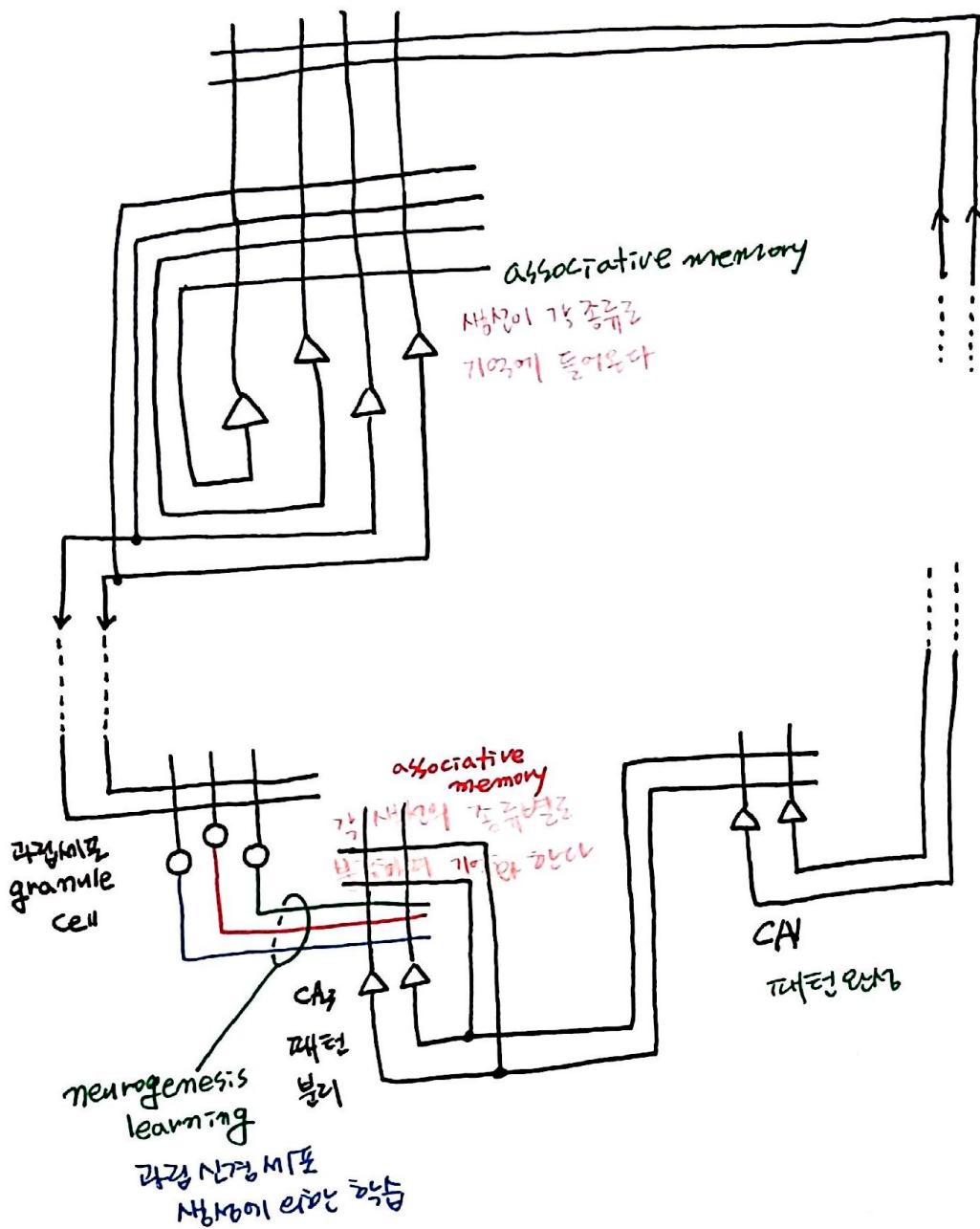
탈맥락하는 기억이 사실이다.

탈맥락화가 아무리 진짜로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재맥락화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감정이나 상황이 다른  
기억이 오류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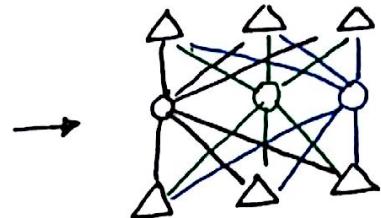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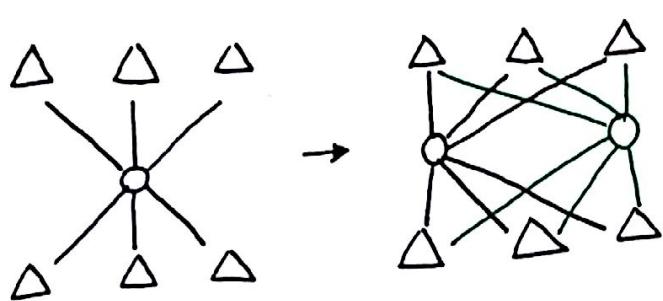


neuron이 서로 만들어지는 예로는 그중대이다.  
후각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하마의 치명적인 특성에 있는  
과립세포가 만들어진다.  
주에서는 특수인화된다.  
adult neuron genesis가  
서로에서 일어난다.  
하루에 700개의  
생긴다. (과립세포)  
만든 목적으로 과립세포가  
생기는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pattern separation"이다.

주차장, 우산, 신발의  
공통점은 자기가 놓은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억을 하는 것은  
새롭게 생긴 과립세포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억은 모두 맥락을  
한다.

pattern화를 하기  
기억하기 때문이다.  
코리풀이 증가하면  
과립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일어난다.  
단백질에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기억이  
생겼을 때에는 외에는  
기존의 기억을 물려  
드려야 한다.

생물이 세포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연결망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억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딜레마를 해결하는 이유는 생물은 놓았던 위치를 암기하고 있다.  
• 그것이 과립세포가 새로 생긴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  
과립세포가 새로 만들어져 기억의 혼란이 일어난다. 딜레마를  
제거하기 어렵다.  
neurogenesis learning이 일어나서 새롭게 생기는  
기억으로 대체된다. 허리를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 진다. 놀라운가?



조현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국어가 가야지, 가야지.  
가자, 가마자, 가마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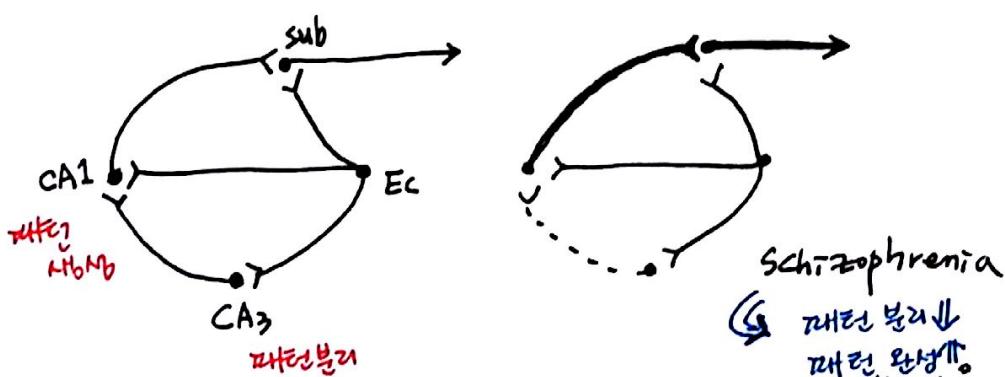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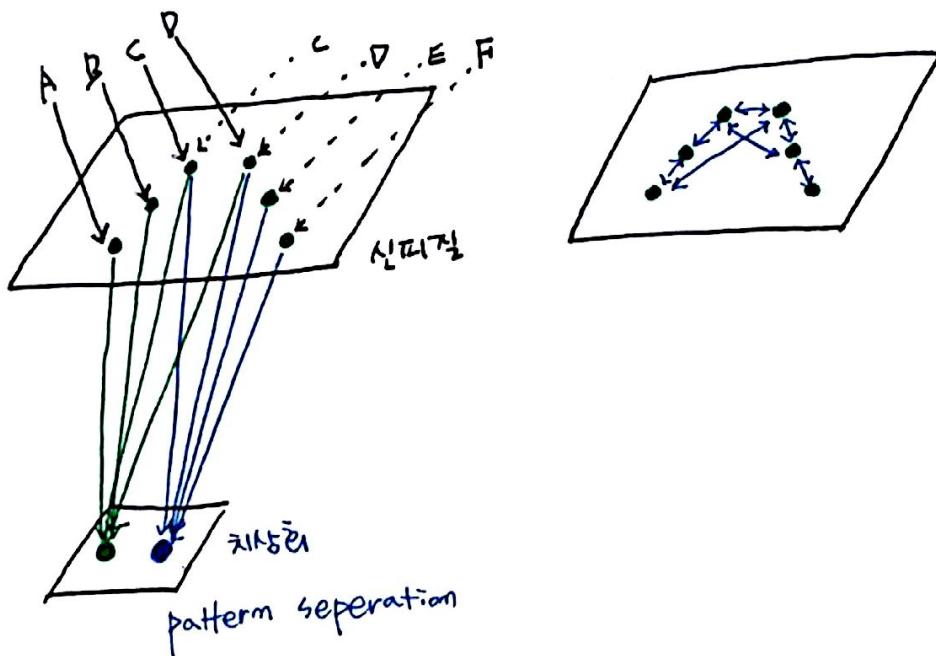
맥락이 없다. 그러나  
정상인 pattern을 끄집어  
뗄 수 있다.  
보통의 비장애인에게는  
Omega 있어야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때린 완장을  
해서 풀어주는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

그러나 조현증 환자에게  
꺼내는 pattern separation  
연습이 정어리진 기억이  
풀리지고 맥락이Omega  
기억이 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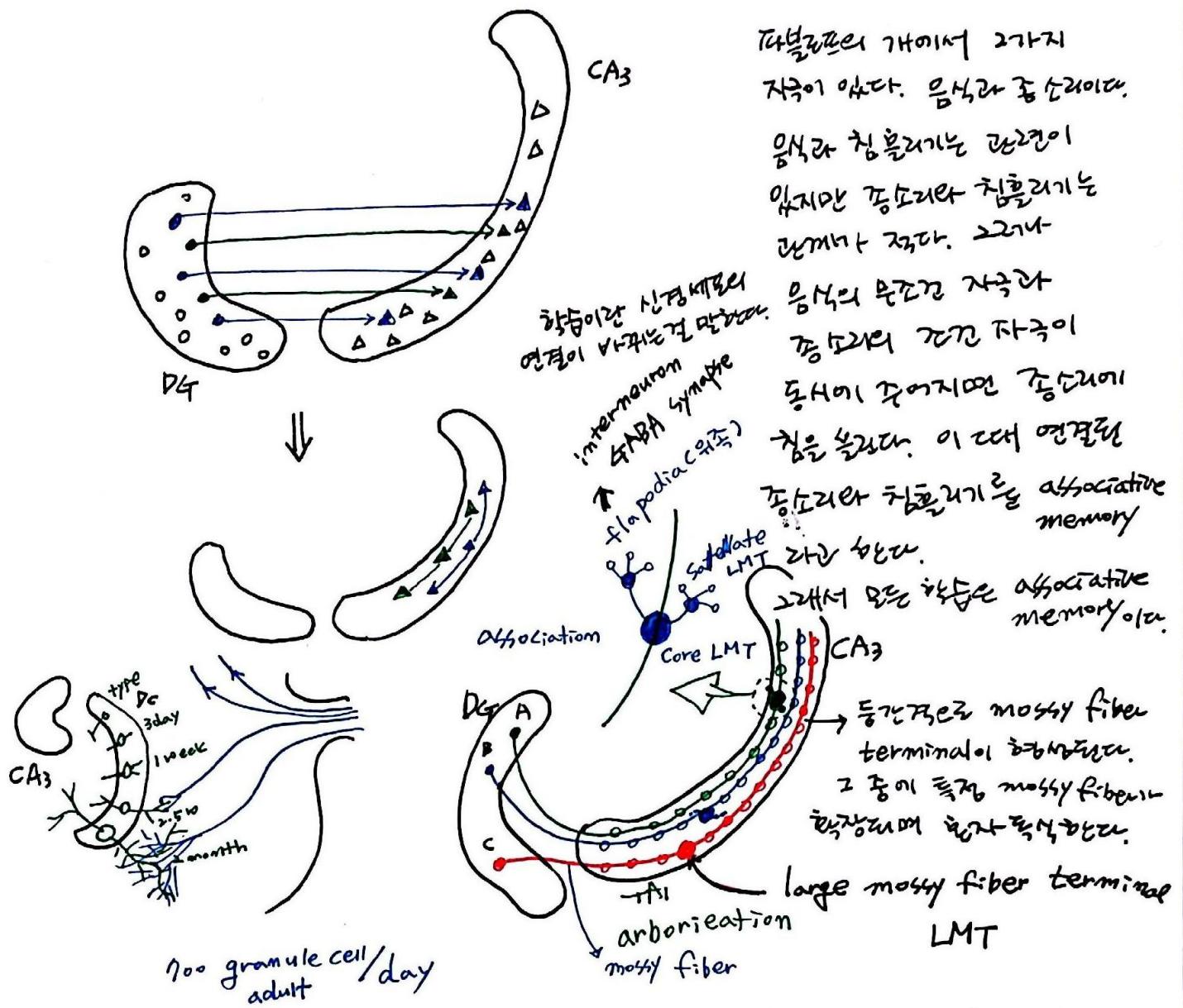
균열이 깨어진 pattern이  
쓸어진다.  
전문가는 그 브이기  
pattern의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에스키오는 눈이 대체  
40개가 넘는 단어가  
있다.

전문가는 분리된 pattern을  
모든 사물을이다.



신경이 깊은 사람은 모든 사건을 pattern separation으로  
가지 않고 정어리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와 고등학교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정신과. 정신과는  
사람은 pattern separation이 잘되는 사람을 믿는다.



Hippocampus →

- LTP induction
- neuro Genesis 과정으로
- theta oscillation

일상기억의 첫번째 특징은 특별한 것을 기억한다는 특별 속에는 새롭고 중요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다. 즉각적이고 무한대 용량이 있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대처 해결에서의 기능이다. 놀이를 접다가 이해하는데는 잘 몰라진다. 느리게 일상하는 아동이 있다.

large mossy fiber terminal, 형성되며 새로운 연결망을 확장한다. 기억의 생성이다.

→ 시 체계에서는 예전 시기의 경험과 그러나 길을 가다 뒤로 잊으려고 하면 돌아온다.

Hippocampus  $\Rightarrow$  Remember avoid separate  $\xrightarrow{\text{fast incoding}}$  immediated  
 specifics, interference, items  $\xrightarrow{\text{automatic exerting}}$

Neocortex  $\Rightarrow$  Extract generalities, experience, items  $\xrightarrow{\text{slow integration}}$   
 $\xrightarrow{\text{task-driven}}$

Self-organized oscillatory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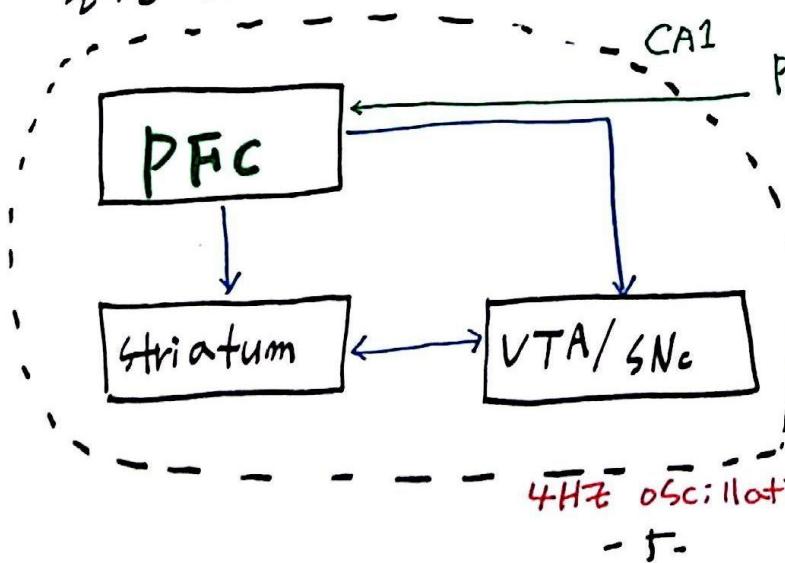
self-sustained replay

Coherent summation

binding-by-gamma

out-of-phase  $\Rightarrow$  oscillation g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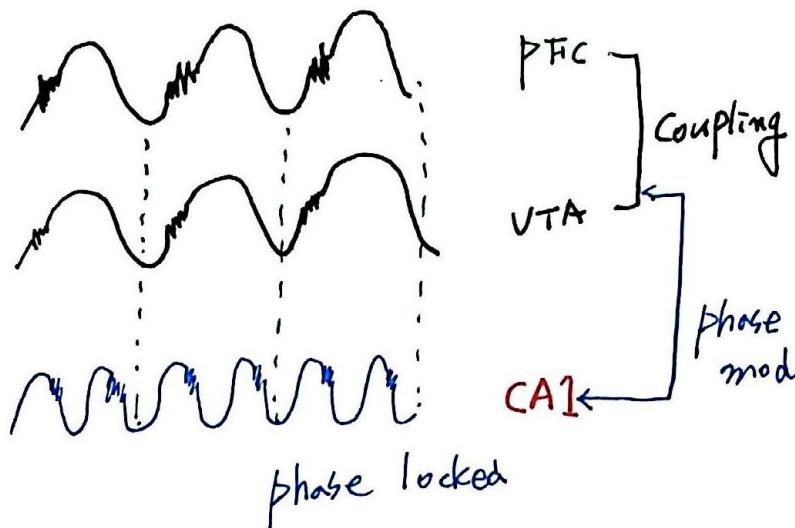
Brain network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주파수 중에 주파수를  
 정해주는のが 관건이다. 잡음을 없애고 신경망 신호를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 oscillatory network에서 주파수가 서로 coherent  
 가는 경우다. summation(증폭)이 일어나면 주파수가 binding이 일어난다. 대장이  
 다른 신호에 반응할 때 사라지고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증폭되어  
 전달이 일어난다. 이 현상이 out-of-phase가 oscillation gating이  
 일어난다고 한다.



Reward information의 reward  
 등급이라는 상징과의 관계이다.  
 그 목표물을 공연에 존재한다.  
 CA1에서의 place information은  
 통해 대가가거나 물건에는  
 정보가 제공된다.  
 place information은 대가의  
 유무이다.

4Hz oscillation  $\Rightarrow$  Reward information  
 $-5-$  4Hz - θ coupling

목적을 정하면 달성할 수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수 육개의 꽁이 우리가 시작한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를 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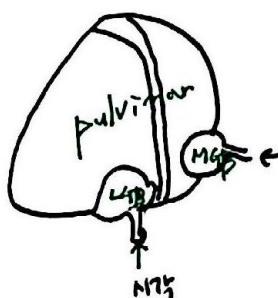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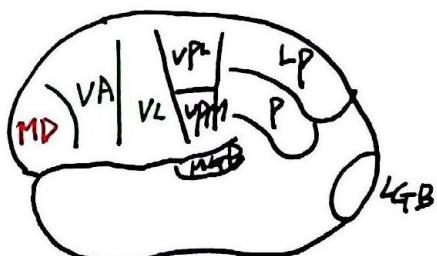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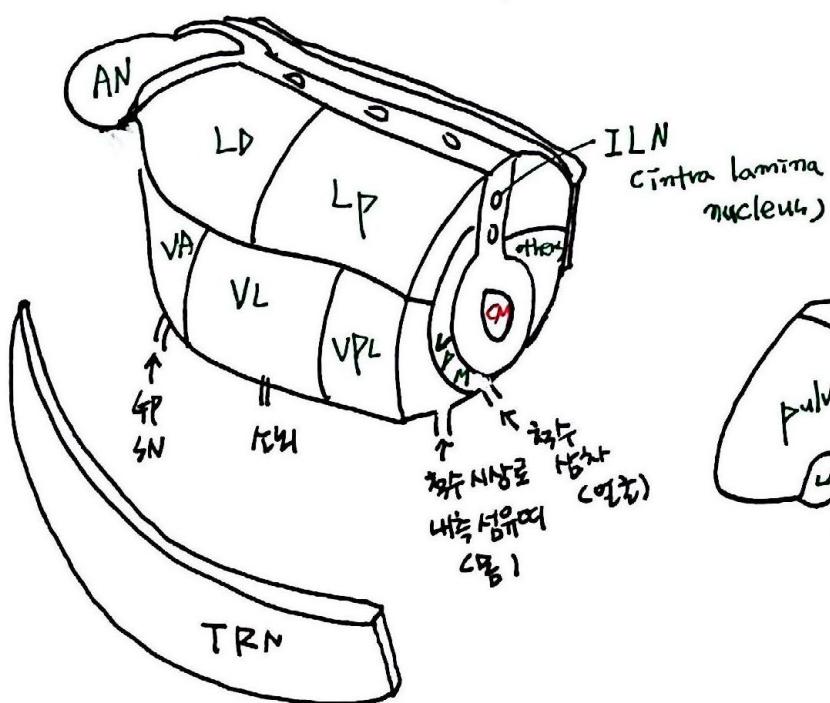
정보를 처리하기 힘든 시스템에 영향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행동은 reward를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CA1이나  
또는 phase lock한 행동은  
기억에 강조된다.  
또는 행동은 장소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NMDA는 NMDA의 특수에 의해  
일어난다. NMDA는 NMDA 없으면  
NMDA, NMDA를 향한 뿐이다.

→ 접두어 축적되는 현상이 out-of-phase  
이다. Coherent summation은  
self organized oscillatory  
network가 oscillation gating하는  
경우이다.

### Thalamus



예전만 이런 시상 - 대뇌 ⇒ 세뇨관

뇌간 - 변연 ⇒ Value

진화적으로 강조되어 일상의 경험을  
만들어 이미지를 전달해 시각화.  
Value는 선택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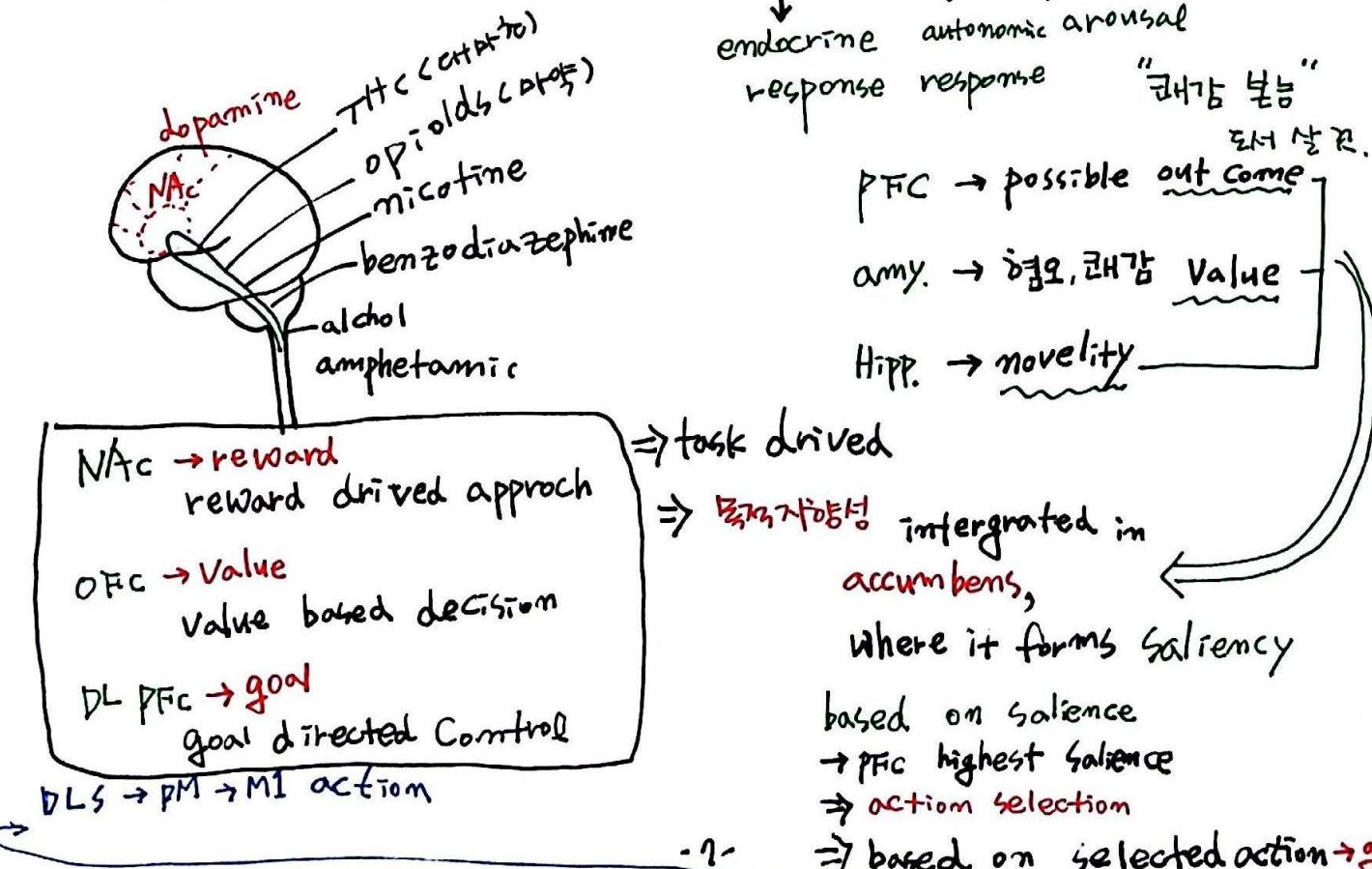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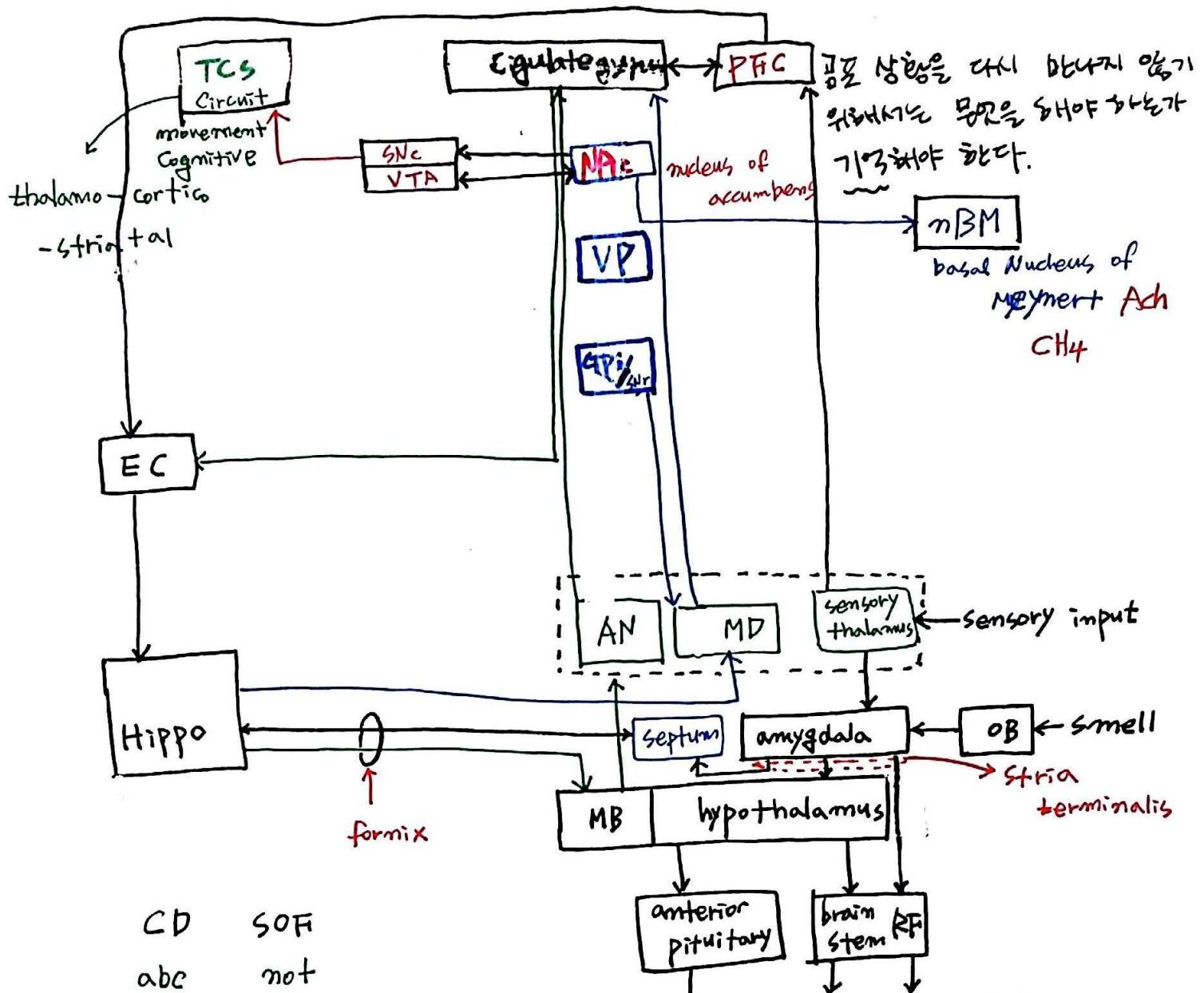
필요한 가치이다. 집도 우리

모든 학습자는 사고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사고지식이 없으면 꽁이 우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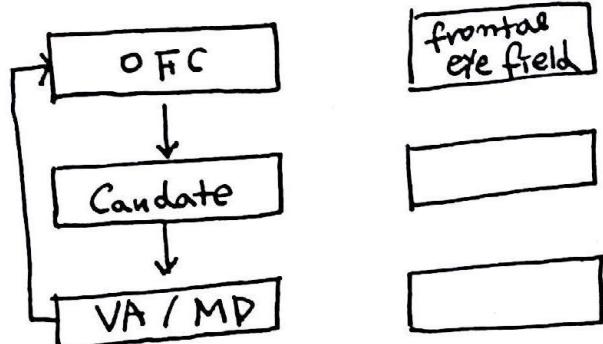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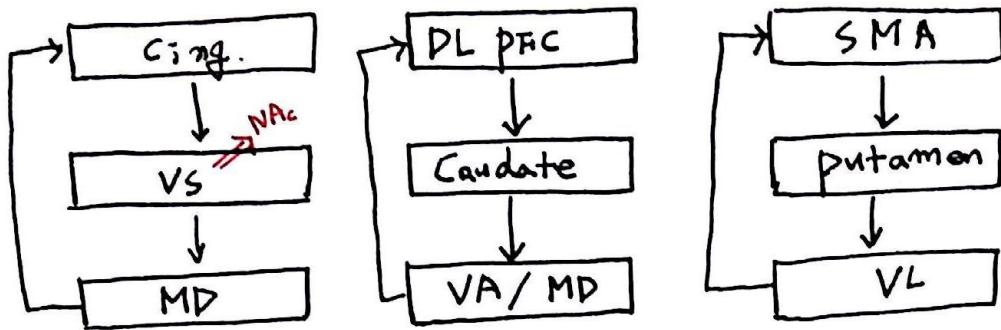
없는 시각을 떠올리면  
사고의 문제이다.

기억이라는 꽁이 우리를 형상은 기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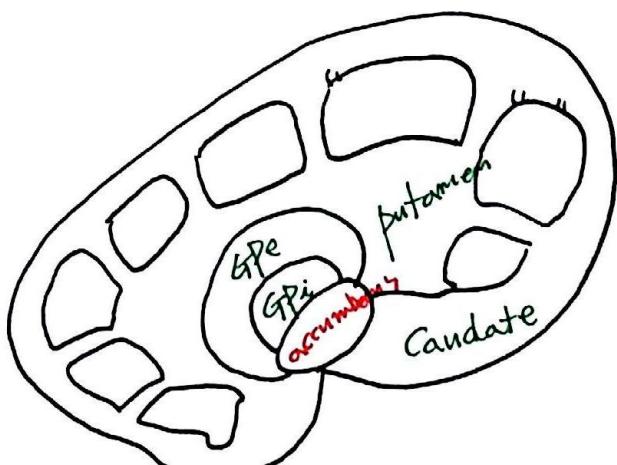
광고는 사고와 같은 사고의 차이는 그 이유가 달라지 때문이다.



## CD SOF



glucocorticoid ↓  
BDNF ↑  
운동  
stress는 반대다.  
장이 공부보다 더 효과적이다.



대뇌피질에 있는 세포군이며  
동일한 것은 성포이다. 뉴런이며도  
성포가 동일하다. 성포를 유발하는  
표현과 신호가 필요하다.

그럼에 성포는 미로거리 연결인  
전기자 흐름이 사고, 회망,  
행복, 환... etc 있다.

뉴런은 그들의 삶이 있다.

[ SWs → 깨어나 → 신체적  
세계로 ]  
REM → 신체적 기억의 공고화

각각은 각각의 역할.

낮에 주를 달리 하여 주파수를  
측정하고, 밤에 주파수를 측정한다.  
그러자 같은 주파수가 흐름에  
있었다. Replay 한다.

(Self-sustained replay)